



BOTANY DOWNS
Secondary College

학생 이야기
Jlhye
한국



안녕하세요. , 저는 한국, 분당에서 온 김 지혜 입니다. 제가 처음 뉴질랜드에와서 너무나 맑은 공기와 자연적인 느낌 ?

저를 보고 해맑게 웃어주는 사람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내야 하며, 학교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막상 공항에 도착 하고 보니 이런 걱정들은 없어지고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안정되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써 제가 뉴질랜드에 온지 5 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랜지뷰라는 인터를 2 년 다닌 후 칼리지 선택을 하기위해 부모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다행이 랜지뷰 학교 선생님들의 상담과 주위 사람들의 추천으로 인해 보타니 칼리지에 부모님과 함께 답사도 해보았습니다.

학교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교육 프로그램이나. 선생님들의 열정과 학교 교육에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들어 보타니 칼리지를 선택 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학교 주변으로 이사도 오고 정말 부푼 꿈을 안고 저에 멋진 학창시절 추억을 만들기 위해 저에 많은 미래 설계를 하고 보타니 칼리지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 했던 것 보다 학교 교육시스템들이 너무 많아 처음에는 어리둥절 하고 친구들에게 물어 보는게 일이었습니다.

한국교육과 틀리게 고등학교에서도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많은 특별활동들이 있고, 많은 교육활동 구룹들도 있고,

특히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열정적인 수업이 저의 꿈을 키워 주시는데 큰 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밑 거름으로 인해 지식인으로써 미래를 설계 할 것이며, 꿈을 키워 나갈 것입니다.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 할텐데, 오뚝이가 되려고 합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10 번 넘어져도 11 번 일어 날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이번에 아이티에 큰 지진이 났는데 한국에서도 많은 의료진들이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의사가 되어 작은 도움이나마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고 싶어요

아직도 그 곳에서 봉사를 하고 계신분들이 계시겠지만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며, 존경하는 분들 이며,제가 제일 부러워하고 있는 분들 입니다.

저도 뉴질랜드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뉴질랜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 활동을 하고 싶고,

경제적으로 어려운사람들 이나 가난한 아이들, 전 세계 자연 재해를 당한 곳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 있다고 하면

의료 봉사를 하고 싶어요

저 같이 많은 유학생들이 이 곳 뉴질랜드에 와서 자유로운 공부와 많은 친구들과 지식들을 공유 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많은 지식과 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세요